## 일주문

**겨울 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회장 송묵 스님은 11월 18일 서울 봉은사에서 '부처님과 함께 만드는 제40회 겨울 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를 진행했다.

**보광정사 대웅전 낙성법회**
증평 보광정사 주지 보광 스님은 11월 25일 오전 10시 대웅전 낙성법회를 봉행한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충북교구 종무원장 원해 스님 등이 참석한다.(043)838-4671

**총무원장 지관 스님 예방**
동국대학교 이명묵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11월 12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이 원장은 "동국대병원을 불교계 건강 병원으로 가꿔가겠다"고 말했다.

**진관사 합창단과 합동음악회**
동산불교대학 김재일 이사장은 11월 26일 오후 7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동산아미타합창단, 진관사 묘음합창단과 합동음악회를 연다.(02)732-1206

**선어강의 개강**
도서출판 민족사 윤창화 사장은 11월 27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종로 민족사 사무실에서 선어(禪語) 강의를 한다. (02)732-2403

**가족기능 강화 보호자 치료사 교육**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이상호 관장은 11월 24일 오후 1시부터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보호자 치료사(놀이치료) 교육'을 진행한다.(02)431-9114

## 마르퀴즈 인명사전에 등재

### 동국대 수학교육과 김성아 교수

김성아 동국대 수학교육과 교수가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후(Marquis Who's Who in Science and Engineering)>의 2008년도 판에 등재돼 화제가 되고 있다.

수학자, 교육자로 인명사전에 등재된 김 교수는 기하함수이론(Geometric function theory)의 대가인 데이비드 민다 교수, 토시유키 수가와 교수와 공동으로 기하함수이론 분야에서 수준급 논문들을 발표했으며, 현재도 이들과 공동연구를 하고 있다.

김 교수는 연세대 수학과를 거쳐 미국 신시네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서울대 대역해석학연구센타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활동하다 1994년 우석대에 첫 부임했으며, 2006년 동국대로 자리를 옮겨 강의를 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 "후손들에게 자연을 그대로 전해주고파"

## 남양주 불교환경연대 대표 혜만 스님

"남양주가 속해 있는 경기북부는 상수원 관리 보호 지역이지만, 주변 골프장 건설 등으로 수질 관리에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남양주 묘적사 주지로 부임하면서 주변 지역을 둘러보니 환경오염이 심각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불교환경연대 창립의 필요성을 절감했지요."

11월 17일 남양주 불교환경연대를 창립하고 대표를 맡은 혜만 스님(묘적사 주지 · 사진)은 창립 취지를 이렇게 밝혔다. 혜만 스님이 환경운동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년전 봉선사에 머물면서부터다. 사찰 근처에 광릉수목원이 있어 꽃과 식물을 보며 좋아하고 신기해하는 어린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

"절에서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고스란히 전해주는 것도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혜만 스님은 사찰내 환경 보존에 관심을 갖게 됐고 특히 서울시민들이 마시는 물의 수원(水原)인 남양주 지역의 수질 관리에 힘써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우선 혜만 스님은 내년부터 운영위원들과 함께 수질보존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지역내 정화시설 확충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지도법사로 있는 남양주시청 청보리회와 지역 사찰 스님들에게 환경운동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자연은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할 중요한 대상입니다. 지역 사암연합회 스님 및 유지들을 대거 운영위원으로 참여시켜 함께 힘을 모으면 남양주 지역의 환경과 수질은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김주일 기자**

## 학인논문 공모전 · 청송학술상 · 불교학술진흥상 수상자

가을을 맞아 각종 학술상과 논문공모전 수상자들이 잇달아 발표됐다. 조계종 교육원이 개최한 제3회 전국승가대학 학인논문 공모전에서는 원산 · 동원 스님(봉녕사승가대학)의 '한국불교의 포교-문화와 국가를 넘어서'가 대상을 차지했다.

금상에는 혜정 스님(봉녕사승가대학)의 '화엄교문(華嚴敎門)과 조사선문(祖師禪門)에 나타난 돈점론(頓漸論) 비교 고찰'이, 은상에는 주오 스님(운문사승가대학)의 '불교와 서양사상의 심신론 비교 고찰', 선주 스님(운문사승가대학)의 '승가의 올바른 식생활 개선방안 모색-운문사 강원 식생활을 중심으로'가 각각 선정됐다. 동상은 도원 스님(불국사승가대학)의 '대혜의 묵조선 비판 연구', 소영 스님(봉녕사승가대학)의 '정보화시대 불교문화콘텐츠 현황과 미래 제시', 지일 스님(삼선승가대학)의 '염불선을 중심으로 한 불교 호스피스 방법에 관한 연구'가 차지했다.

원산 스님

동원 스님

권오민 교수

이자랑 박사

재단법인 청송장학회(이사장 고건)가 故 청송 고형곤(1906~2004) 교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올해 처음 제정한 '청송학술상'에는 권오민 교수(경상대)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연기법이 불타의 자내증이라는 경증 검토'와 '사성제와 십이연기'라는 논문으로 수상자로 선정된 권 교수는 11월 17일 함춘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1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한국불교학회(회장 이평래)는 11월 17일 개최한 추계전국불교학술대회에서 제2회 '불교학술진흥상' 수상자로 이자랑 박사(동경대)를 선정했다. 한국불교학회는 "이 박사는 '율장을 통해본 승단과 현대사회의 조화' 논문에서 계와 율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해 율이 갖는 성격과 시대상황과의 접목성을 잘 제시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여수령 · 조동섭 기자**

## 제5회 대원상 대상 수상자 발표

### 승가 부문 종범 스님 등 수상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홍승희)은 11월 15일 제5회 대원상 심사위원회(위원장 민병천, 대한불교진흥원 이사) 회의를 개최하고, 대상 승가부문에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사진)을, 대상 단체 부문에는 동련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대표 석지현), 특별상에는 대광맹인불자회(대표 이재달), 오희창(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 고문), 전재성(한국빠알리성전협회 대표)씨를 각각 선정했다. 재가 부문은 대상자가 없다.

대원상(大圓賞)은 (재)대한불교진흥원 설립자인 故 대원 장경호 거사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 2003년 제정돼 한국 불교의 대중화, 생활화, 현대화를 위해 모범적으로 정진하고 있는 불자 및 단체를 선정 시상하고 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개인은 각 1500만 원, 단체에는 2000만 원, 특별상에는 각 5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시상식은 12월 7일 오후 2시 마포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불교방송 대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 제13회 불교인권상 수상자

### 박석운 위원장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 지원 · 한상범)는 제13회 불교인권상 수상자로 박석운(사진) 한국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을 11월 14일 선정했다. 박 위원장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비정규노동자 차별 철폐, 외국인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보호 운동 등을 펼쳐왔다. **김주일 기자**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길

## 불교 시인 이원섭씨 별세

불교 시인이자 불교학자인 이원섭(사진)씨가 11월 9일 서울대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84세. 고인은 강원 철원 출신으로 혜화전문학교 불교학과를 나와 1948년 '예술조선'에 시를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1950년 첫 시집 <향미사(響尾蛇)>, 2003년 두 번째 시집 <내가 뱉은 가래침> 등 두 권의 시집을 통해 선(禪)의 색채가 짙은 불교적 작품을 선보여 불교계의 주목을 받았다. 고인은 시인으로서는 평생 두 권의 시집밖에 발표하지 않았지만 불교학자로서 <법구경의 진리> <깨침의 미학> 등 수십 권의 책을 저술했다. 또한 <당시(唐詩)> <시경(詩經)> <논어(論語)> <노자(老子)> <불교대전> 등 다수의 책을 번역했으며, 문인협회 부이사장과 현대시인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주일 기자**

## 복천사, 대웅전 낙성식 봉행

부산 복천사(주지 경호)가 대웅전 중창불사를 회향하고 낙성식을 11월 12일 봉행했다.

과거 복천사 대웅전은 평수 59.5㎡로 좁고 낡아 복천사를 찾는 신도들의 불편함이 많았다. 주지 경호 스님은 낡은 대웅전을 2006년 2월 해체하고 2.5배 늘려 138.84㎡ 규모의 전통목조 양식으로 중창불사를 진행했다.

항일운동의 전초기지였던 복천사는 부산 영남지역 전통불교미술의 대불모(大佛母) 완호 스님이 주석하며 불화소로 운영했던 사찰이다. 또한 선원제전집도서, 지장시왕도, 독성도등 총 7개의 부산시지정문화재 및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적지로 주목받고 있다. 경호 스님은 "위로는 은사스님의 유지를 받들고 아래로는 불자님들의 오랜 바람인 대웅전 낙성식을 거행하게 된 것은 여러 대덕스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신도분들의 정성과 노력 덕분이다"며 "이 도량이 영도는 물론 부산 불교의 신행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감회를 밝혔다.

낙성식에는 영주암 회주 정관 스님,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 복천사 회주 혜문 스님, 김형오 의원, 어윤태 영도구청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이전** ■ 불교장례전문업체 연화회(대표 유재철)는 11월 24일부터 사무실을 서울 종로구 경운동 74번지 조계종중앙신도회관 1층으로 이전한다.(02)734-4444

**부고** ■마포포교원 이흥세 원장(사진)이 11월 15일 별세했다. 향년 95세.1912년 출생한 이흥세 원장은 1982년 조계종 포교사 품수를 받아 왕성하게 활동하던 중 2005년 8월 마포포교원의 모든 재산을 동산불교대학에 기증하기도 했다.

400만 부산시민을 위한 21세기 녹야원

부산광역시 불교신도회관 개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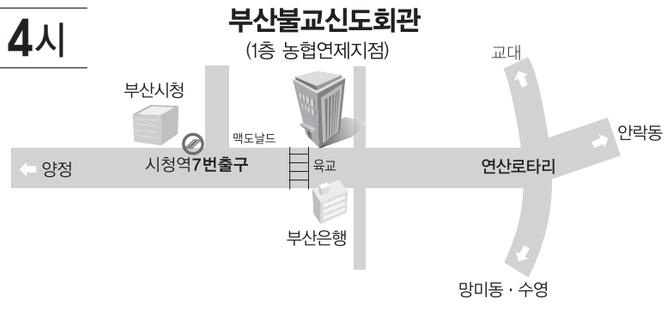
200만 부산불자들의 숙원사업인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관 개관식에 모십니다.

1967년 5월 1일 부산불교신도회가 출범한지 40성상. 재가불자의 서원으로 900평 규모의 70억 불사를 부산 도심 한복판에 건립하였습니다.
"비구들이여, 자! 전도를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라는 전도선언을 실천할 전법도량을 만들고자 합니다.
수행, 교육, 문화, 나눔의 장으로 400만 부산 시민을 위한 21세기 녹야원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도심포교 성공신화 원력의 첫 발을 내딛는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관 개관식에 왕림하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일시 불기 2551년 11월 28일 수요일
삼존불 점안식 : 오후 2시 / 신도회관 개관식 : 오후 4시

장소 부산광역시 불교신도회관 6층 法界精舍

문의 (051)853-2021




釜山廣域市 佛敎信徒會